

조계종 승가고시 시행한다

6월중 법령개정안 마련...고시위원회도 구성

승려의 자질향상과 승단의 위계 확립을 위한 종단차원의 승가고시가 실시될 전망이다.

조계종 승가고시는 85년 제정된 승가고시법에 1급에서 3급에 이르는 지위와 자격을 승려들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4급과 5급의 경우도 수계산림의 적법성을 추진하기 위해 계단위원회에서 종법의 뒷받침 없이 16년간 임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승가고시가 사실상 실시되지 않음에 따라 승가위계가 무너지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해마다 승공진작과 승려의 자질향상을 위한 승가고시 시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민)은 5월 30일 강원, 울산, 기초선원, 대학 등 종단 교육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승가고시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계단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4급 및 5급 승가고시를 종단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3급이상의 승가고시도 단계적으로 치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관련기사 3면)

이 자리에서 무비스님(은혜사 승가대학원장)은 기초발제를 통해 "종단의 교육현실과 고시시행의 한계는 승가의 위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며 "고시위원회를 구성, 고시과목 개선, 승가고시법 시행규정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발제에 나선 철우님(과

계사 영산출원장)과 지오(해인사강원 강주)스님은 "승단의 질서는 위계의 준수로부터 이루어지는 만큼 법제불사의 취지에 따라 종단차원에서 고시집행주체를 확립하여 승가고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화사 기초선원장 영진스님과 본각(승가대 교수)스님은 "일률적인 시험제도는 참선수행을 위주로 하는 선원과 사회복지 등 의전에도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인 만큼 공통과목과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선택과목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교육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승가고시 전반과 법제제도에 관한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 1급부터 5급까지 단계적으로 치뤄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 제개정에 박차를 가한다

는 계획이다. 6월까지 승가법제고시와 관련한 종법개정안 및 종령개정안 마련, 고시위원 추천, 종령개정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먼저 7월초까지 각 분야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고시위원회를 정식 발족하여 올해 가을에 열리는 구족계 수계산림부터 참여기로 했다.

또 4급 승가고시가 정식화됨에 따라 승가 기본교육의 교과목 통일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전통강원과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요충되는 교과목의 신설작업도 병행하여 승가고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교육부장 계성스님은 "이번 토론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법제제도 시행령 개정작업이 방향을 잡은 만큼 고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nia.com)



5월26일 진행된 조동종 제3세 증정추대법요식에서 윤지명 증정스님(오른쪽)이 봉행위원장 학봉스님으로부터 불자(拂子)를 봉정받고 있다.

조동종 윤지명 증정 추대 법요식

대한불교 조동종(총무원장 학봉) 증정 11주년 기념과 윤지명 제3세 증정 추대 법요식이 5월 26일 오전 11시 종로구 부암동 하림각 특설도량에서 봉행됐다.

원웅종 증정 일공스님, 여래종 증정 인왕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총파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원택스님 등 각 종단의 인원과 대덕, 간부 스님들과 조동종 신도 등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법요식에서 증정 지명스님은 "탐내고 성내고 여러식은 중생을 구제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리라 서원한

부처님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부대중은 마음속에 내재돼 있는 진여실상의 자성불을 발광하여 대자대비심으로 불국정토를 건설하자"고 법어를 내렸다.

지명스님은 지난 56년 백운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75년 국당스님을 법사로 구족계, 남체스님으로 부터 비구계법계를 종수했다.

스님은 조동종 제2·3대 총무원장이었던 증정 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사회문화회 종신총재로 있다. 이경숙 기자

"북한 종교인 서울방문 정부지원 필요"

KCRP 변진홍 사무총장

"북한 종교인의 서울 방문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변진홍 KCRP사무총장은 29일 온겨레평화대행진 행사준비위원회(상임공동대표 정대 조계종총무원장)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남북 민간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주제 토론회에서 '남북 종교교류협력의 의의와 전망'이란 제목의 사례발표를 통해 북한 종교인의 상호방문을 강조했다.

변 사무총장은 "평양교역단의 방문에서 보듯이 그들의 현실적 이익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뒤따를 경우 앞으로 종교인들의 서울 방문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북한 종교인의 서울 방문을 종교계에서 제시할 경우 정부에서 정책적·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 사무총장은 또 "남북 종교교류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은 종교분야의 남북협력사업 기반 조성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불교계의 신계사 복원과 대장경 공판번역, 기독교계의 교회유적 복원 사업 추진 등에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티베트 타쉬 왕디 장관이 정대스님에게 불상을 선물로 전달하고 있다.

티베트 망명정부 대표단 정대스님 예방

달라이라마 방한 지원 요청

달라이 라마 방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한한 티베트 망명정부 대표단 3명이 2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예방했다.

5월31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한 티베트 망명정부의 타쉬 왕디 문화종교 장관과 카르마 깔렉 유평스님, 자물 린포체 스님 등 3명·현직 일본·동북아 대표부 대사가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대스님은 "한국의 많은 불자와 시민들이 달라이 라마를 받고 법문을 듣고 싶어한다"면서 "방한준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방한이 원만하게 이뤄져 불교 홍보에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제 대해 타쉬 왕디 장관은 "달라이 라마는 한국 국민들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고 있다"면서 "한국

을 방문하게 되면 오랜 불교 전통을 지닌 두 나라의 불교 교류가 가속화되고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티베트 대표단은 4박 5일간의 방한기간 중 양산 통도사를 참배하고, 조계종, 태고종, 진각종을 비롯한 불교종단과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 등을 방문해 달라이라마 방한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협의한 후 4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 정용기 사무국장은 "조계종과 태고종 진각종 등이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지원하기로 해 달라이 라마 방한 불사가 더욱 힘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인터뷰 티베트 타쉬 왕디 문화종교부 장관

"달라이라마 한국방문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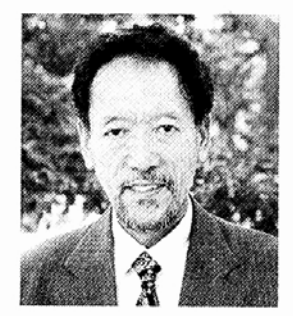
"한국을 방문하여 티베트에 관심 있는 한국 불자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 그리고 달라이라마도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한다."

달라이라마 방한과 관련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5월31일 김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티베트 망명정부 타쉬 왕디(53·사진) 문화종교부 장관.

타쉬 왕디 장관은 그러나 "달라이라마는 자신의 방문으로 어느 정도 부익든 그 정부에 불편을 끼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타쉬 왕디 장관은 그러나 "달라이라마는 자신의 방문으로 어느 정도 부익든 그 정부에 불편을 끼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동국학원 이사회 감사 2명 선임유보 조계종과 갈등 '완화' 동국학원은 29일 신라호텔에서 제169회 이사회를 열어 공인회계사 장현표(67) 씨만을 감사로 선임하고 감사 2명에 대한 선임은 유보시켰다. 이로써 감사 선임을 놓고 동국학원과 조계종이 빚어온 갈등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섰다. 동국학원 이사회는 3명의 감사를



다"고 달라이 라마의 뜻을 전했다. 타쉬 왕디 장관은 "한국의 불자들이 달라이라마의 방문을 원하고 있으며, 달라이 라마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정신적 지도자이므로 한국 방문도 가능하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타쉬 왕디 장관은 "달라이라마의 방한은 한국 불자들에게 그의 경험과 영감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미희 기자

재가연대, 연구비지원대상자 결정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불교활동 연구비(각 100만원) 지원대상자를 선정, 5일 오후5시 재가연대 강의실에서 지원금 전달식을 갖는다.

"21세기 한국불교혁신의 과제"란 주제에 선정된 연구자와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박수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사이버 스페이스를 활용한 불교의 포교현황과 발전전략 △박재현 조계종 중앙총회 사무처 계장·조계종 승려 노후복지에 관한

연구 △박규보 대불청 부산지역 연구원·NGO운동과 불교 △이덕진 시민선우회 부회장·우리나라 장묘관제에 관한 법규의 문제점과 해결책 △황선정 자비전화 상담연구원·청소년 공부방법 배우기 프로그램(수시관 명상을 중심으로) △정연희 포교사단 교육연구원·아함경에 나타난 교육활동 연구 △이재수 광주불교교육원 간사·한국불교의 올바른 재가상 정립을 위한 소고(유미경을 중심으로) 등이다. 김재경 기자

불교교양대 졸업생 대졸이상-40대 '많다'

불교교양대 신도교육 참여자는 대졸이상 학력(51%)에 40대(33%)가 가장 많았다. 또 이들은 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75%), 스스로 불교대학에 입학(42%)했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조계종 포교원이 최근 전국 60개(응답 42개 대학) 불교대학 졸업생 556명을 대상으로 신도교육조사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학력이 높고 신앙기간이 오래될수록 교육참여에 대한 욕구가 강해졌다고 조사됐다. 신도교육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불교대학의 교과목은 근본교리(65%), 부처님 생애(11%)이며, 어려운 교과는 근본교리(23%), 종교학(20%), 종헌종법(14%)순이었다. 강사는 스님교수(48.9%)를 재가교수(28.4%)보다 더 선호했다. 김원우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한반도 전역에...

관음성지 강화 보문사에서 용왕대제가 열립니다

봉행

새 천년 용의 해를 맞아 용왕대제가 서해제일의 관음성지 강화 보문사에서 열립니다. 4월 28일 (음력3월 24일) 입제식을 거쳐 49일간 봉행하게 되는 보문사 용왕대제는 예로부터 그 가피가 충만하고 그 영험 또한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최대의 용왕대제입니다. 관세음보살 우측 보처로 비·구름·물을 관장하는 용왕대신은 육도중생을 이롭게하고 바다물속의 중생을 구호하는 성증입니다. 선망부모의 영혼을 천도하고 살아있는 중생들의 안락함을 원하는 불자들은 모두 서해제일의 관음성지 강화도 보문사에서 열리는 용왕대제에 참석하여 모든일을 원만성취할 수 있는 용왕대신의 가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불기 2544년 6월

▶ 회향철야기도 6월 14일 (음력 5월 13일)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 용왕제 회향 6월 15일 (음력 5월 14일) 오전 10시

▶ 회향법문 정대 큰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동참금 30,000원 영가1위 10,000원

▶ 구좌번호 국민은행 252-01-0003-040 예금주 보문사
우체국 100479-0083202 예금주 보문사
조흥은행지로 7626131

▶ 문의처 종무소 ☎ 032)933-8271~3 팩스 032)933-8270

▶ 장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29번지

▶ 교통편문의 서울지역 ☎ 02)387-8578 · 352-8926
인천·부평·부천지역 ☎ 032)766-7500

본사사령

김두식 命 취재1부 기자

권형진 命 취재2부 기자

2000년 6월 1일

대한불교 조계종 보타낙가산 보문사 증명총무원장 정대 주 지 지 만